

신안군, 전해역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 대책 시급



원광해변

중국 연안서 유입... 악취 발생·자연경관 오염 양식시설 부착 생산량 감소·수산물 품질저하

신안군은 금년 새해부터 시작한 강풍으로 전 해역에 대량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 전역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연안으로부터 탈락되어 떠다니다가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북상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유입량은 1,000여톤이지만 바

다날까 악화로 확인이 어려운 해상양식장 유입량까지 파악되면 1,000여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유입은 최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신안군 주요 해안 관광지 등에 유입되어 악취 발생과 자연경관을 오염시키고, 특히 김, 다시마 등 양식시설에 부착하여 염채 탈락을 일으켜 생산량 감소시키고, 혼

합된 수산물은 품질저하로 상품가치 하락의 원인이 되는 등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신안군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1억 8천만원을 14개읍·면에 배정하였으며 해안가에 부착된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비저클리너와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수거를 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으로 계속해서 모자반이 밀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속적인 강풍으로 인해 계속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으로 해상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어

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신안군 수산물(김, 미역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괭생이모자반이 연안에 유입되기 전 예측을 통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에 1,800여톤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어 480백만원의 전남도 예비비를 투입하여 인력 1,660명, 선박 635척을 동원해 수거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감염병예방관리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

영광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0년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감염병예방관리 평가 항목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응, 감염병 연중감시체계 운영, 표본감시기관 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발원성질환 예방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신종감염병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팀 운영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확진자와 접촉자의 신속한 분류와 철저한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주력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철저한 예방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 개장 방역 지도점검

방역준수 사항 점검·우시장 방문 축산농가 격려



영암군은 소의 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개장 하는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준수사

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우시장을 방문하는 축산농가들을 격려하였다. 신축년 새해 첫 개장에 따라 영암군

에서는 가축경매시장의 방역소독가축경매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농가들의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은 2017년 6월 첫 개장 후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도에는 9천여두 450여억원 경매실적을 거두어 명실상부 전남 대표 가축경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가축경매시장 활성화 및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한우혈통분석, 인공수정 정책대, 우량암소 출산 장려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올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대양산단 김 수출업체와 소통 김종식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애로사항 청취·현장 시찰

목포시가 지난 1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대양산단 내 김수출업체인 대상(주) 해조류연구센터와 ㈜정풍을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가 주최한 '블루수산 분야 미래 전남 혁신 리더 대상'에 영광을 안은 대상(주) 해조류 연구센터(센터장 이상민)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김 가공산업을 목포의 효자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며 "고부가가치 선도 브랜드전략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목포 김을 세계인의 밥상 위에 더 많이 올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주)는 국내 종합식품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미원, 종가집 등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중견기업이다. ㈜정풍(대표이사 김영주)은 대상(주)의 자회사로 작년 1월 목포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고, 현재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른김과 조미김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

이상민 센터장은 물김을 산지에서 공장으로 이송할 자동화시스템의 필요성과 함께 산단내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요청 등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김은 생산 가공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져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커 혁신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해 민선 7기내 전남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산업 각 분야에서 전남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일궈준 혁신리더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은 수출액 6.1억달러(약 6,704억원)를 돌파한 글로벌 푸드로 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비유되고 있으며 특히 목포 대양산단 마른 김 업체는 전국 마른 김 생산량의 30% 생산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함평군-국민권익위 28일 이동신문고 운영

함평군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이달 28일(10시~16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마을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동 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법률상담 ▲부패 신고 ▲지역분쟁 ▲노동관계 ▲소비자 피해 구제 등 15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이날 함께 받을 수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무안군, 성남1지구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3228필지 현실경계 불일치·지적불부합 심해 주민 재산권 보호·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무안군은 금년 무안읍 성남1지구 등 5개 지구 3228필지 246만㎡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지구는 무안 성남1지구, 일로 지장1지구, 삼향 용포1지구, 몽탄 당호1지구, 해제 신정1지구로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고 지

적불부합 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국비 6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민공람공고를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설명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

다. 군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